

태국의 민주주의 연구: 탁신 정부 시기(2001-2006년) 시민들의 민주주의 지지 분석

이재철* 위간다 립타나피락**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설계 |
| II. 탁신과 태국애국당 | V. 분석 결과 |
| III. 이론적 논의: 민주주의 지지 | VI. 결론 |

| 논문요약 |

이 논문은 '아시아 바로미터 여론조사'를 사용하여 탁신 정부 시기 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태도와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탁신 정부의 집권 초기와 말기인 2001년과 2006년 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탁신 집권 후기 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프리덤하우스의 지표를 살펴보면 태국은 2001년 '자유'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과 2006년 각각 '부분적 자유'와 '비자유' 국가로 분류되었다. 둘째, 탁신 집권 후기 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많은 시민들은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선호했고, 정부 형태로서 민주주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탁신 정부의 집권 후기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가정경제 사정에 대한 평가, 국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등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경우 탁신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가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민주주의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 태국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치적 성과뿐이었다.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전공 부교수.

** 공동저자: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 주제어: 민주주의 지지, 민주주의 공고화, 체제 성과, 탁신, 태국

I. 서론

1970년대 중반 남유럽에서 시작된 민주화는 ‘제3의 민주화 물결’로 표현될 만큼 세계의 많은 국가로 확산됐다. 남미에서 민주화의 물결은 1970년대 후반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으로 확대됐다. 아시아에서는 1980년대 필리핀을 시작으로 한국과 대만이 민주화에 성공했고, 1990년대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민주화를 경험했다. 특히 1989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1990년대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 물결에 합류했다. 그 결과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시작되기 이전인 1973년에는 민주주의 체제가 30개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59개 국가로 확대되어 그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Huntington 1991).

최근에 발표된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보고서의 분석에 의하면 조사에 포함된 195개 국가 가운데 64%인 125개 국가가 선거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됐다(Freedom House 2016).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약 10개 국가는 1990년대 ‘부분 자유(partly free)’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민주주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자유(free)’ 국가로 상향 조정됐다(Levitsky & Way 2015). 특히 연간 보고서에서 2011년도까지 ‘비자유(not free)’ 국가로 분류되던 튀니지는 2015년 보고서에서 정치적 권리가 긍정적으로 평가 받으면서 ‘자유’ 국가로 분류됐고, 그 결과 민주주의 체제에 합류됐다(Freedom House 2016).

그러나 민주화의 방향이 시간의 경과와 비례관계를 갖는 선형(線型)적인 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제3의 민주화 물결을 경험한 국가 가운데 일부에서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신생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한 경우도 있었다.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시작한 직후인 1970년대 중반 인도와 레바논의 민주주의는 후퇴한 경험이 있으

며, 1980년대는 터키, 피지, 나이지리아 등에서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Diamond 2008). 2000년 이후에도 일부 신생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현상은 지속하여 나타났다. 다이아몬드(Diamond 2015)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군사 쿠데타, 군대 개입, 인권 남용, 정치적 불안정, 행정권 남용, 선거 개입 등 국내 정치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25개의 신생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붕괴됐고 이들은 권위주의로 회귀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통치자의 권력 남용이었다.

태국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Kurlantzick 2010). 태국은 1992년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고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됐다. 이후 정당은 자유롭게 경쟁을 하였고, 시민들의 정치적인 권리는 보장 받았다. 무엇보다도 1997년에 개정된 헌법은 시민의 참여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태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인정받았다(서경교 2010). 이런 이유 때문에 태국의 민주화는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았으며,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2006년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다. 2006년 쿠데타는 1932년 군사 쿠데타에 의해 태국의 정치 체제가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된 이후 또 한 번의 ‘정치적 악순환’을 제공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¹⁾

1990년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태국의 민주화 과정이 공고화를 완성시키지 못한 채 쿠데타로 이어지며 민주주의가 퇴보한 원인은 2001년과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총리(이후 탁신)와 태국애국당(Thai Rak Thai Party) 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태국애국당 정부가 농촌 지역에서 실시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새로운 중산층을 탄생시켰고, 이들은 정계에 신흥 세력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1) 태국 정치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Thai politics)은 군부가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쿠데타가 쿠데타로 이어진 태국의 정치를 의미한다. 태국 정치에서 권력 갈등은 군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명분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군인이 쿠데타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 반복했다. 1932년부터 2006년까지 12번의 군사 쿠데타가 성공했으며 군부는 태국 정치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서경교 2012; Samudavanija 1982).

태국의 전통적인 엘리트 세력은 신흥 중산층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동안 이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이 침해 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탁신 총리가 집권했던 시기 이런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신흥 세력과 전통 세력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2006년 탁신 총리 일가의 부정부패 의혹이 밝혀지면서 민주당 등 야당 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反)탁신 운동이 전개되었고, 대법관들은 주요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총선 결과에 대하여 무효를 발표하는 사건 등이 있었다. 즉 태국의 2006년 군사 쿠데타는 탁신과 태국애국당이 집권하던 시기 발생했던 전통 세력과 신흥 세력 간의 심한 갈등 및 정국의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이동윤 2007).

태국과 같은 신생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역행하는 현상은 민주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하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정치문화적인 시각에서 민주화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신생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가? 본 논문이 분석할 연구 질문들이다. 본 논문은 2006년 군사 쿠데타의 원인을 제공했던 탁신 집권 시기(2001-2006년) 태국의 민주화를 정치문화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즉 탁신 정부의 집권 초기인 2001년과 말기인 2006년 태국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뤄져 있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탁신과 태국애국당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한다. III장은 이론적 논의로 민주주의 지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IV장에서는 자료, 변수측정, 분석모형 등을 소개하고 V장에서는 자료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논문의 분석 내용을 요약한다.

II. 탁신과 태국애국당

1980년대 리스 회사 및 정보통신 회사를 운영하던 탁신은 1994년 태국의 외무장관으로 정계에 처음으로 입문했다. 이후 1998년 태국애국당을

창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태국애국당의 목표는 태국을 근대화시키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즉 태국애국당의 목표는 다른 국가와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의 근본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태국애국당은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로부터 태국을 구할 수 있다고 약속했고, '탁시노믹스'라 불리던 탁신의 경제 정책은 태국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2001년 총선을 앞두고 탁신은 채무 규제, 자금 지원, 저렴한 의료제도 등 농촌과 도시 빈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Baker & Phongpaichit 2005). 그가 제시한 공약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던 서민층 및 중산층을 비롯하여 정치 체제의 변화를 요구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런 모습은 과거 태국 정치와 크게 다른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국 정부는 군사정부이든 문민정부이든 정부 형태와 상관없이 시민들의 요구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충실했기 때문이다.

탁신은 구시대 정치인들과 달리 유권자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을 시도했다. 특히 탁신과 그의 정당은 북동부 지방에 거주하는 소외 계층과 진보적 성향을 지닌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태국애국당은 2001년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후 태국애국당은 태국국가당(พรรคชาติไทย), 새희망당(พรรคความหวังใหม่), 자유진실당(พรรคเสรีธรรม) 등 세 정당과 합당하면서 의회 총 500석 가운데 300여 석을 차지해 의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했다. 태국 정치사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처음 실행되었고, 이런 이유로 탁신 정부는 태국 역사상 처음으로 4년간의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2005년 총선에서도 태국애국당은 재집권에 성공했다. 의회의 총 의석 500석 가운데 절대 다수인 377석을 차지하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2005년 총선에서도 탁신의 태국애국당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기존 정치에서 소외됐던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저소득층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이동운 2007). 포퓰리즘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탁신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소외되었던 노동 계급과 서민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깨우치게 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2005년 총선에서 기존 군부 쿠데타 세력들의 명분이었던 부정행위나 부정부패 등

의 모습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시민들은 태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낙관적인 기대를 했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태국 정치가 권력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면서, 태국의 향후 민주주의와 정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었다. 이들은 태국애국당이 지역 정당이 아닌 전국 정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태국에서 새로운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었다(Nelson 2007).

그러나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탁신 정부와 태국애국당이 보여준 행동은 이런 예상들과 달랐다. 탁신은 2006년 1월 자신이 소유한 주식회사 ‘친 코퍼레이션(Shin Corporation)’의 주식을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에 매도하면서 19억 달러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는데 이때 세금을 내지 않았다. 심지어 탁신 정부는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세금을 미납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밖에 탁신이 수많은 부패 스캔들에 연유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태국 시민들은 탁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탁신 정부를 지지하였던 중산층은 지지를 철회했다.

물론 탁신 정부의 비민주주의적인 행위가 2005년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은 아니다. 2001년 자신이 소유한 iTV 방송에서 직원을 강제로 퇴출시키거나 고소하는 등 언론을 탄압했다(이동운 2007). 2004년 무슬림 지역인 나라티왓시의 탁바이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로 인해 일부 시위대가 체포된 이후 군대 트럭 안에서 질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탁신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사건 보도를 방해하기도 했다(Baker & Phongpaichit 2005).

사실 탁신 정부는 집권한 이후부터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2001년과 2005년 탁신 정부는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원내 제1당이 되면서 야당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탁신은 태국애국당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1997년 헌법의 취약점을 악용했던 것이다. 태국애국당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비민주적인 권력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²⁾

태국에서 탁신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2006년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ปริญญา เทวานฤมิตรกุล(2013)의 논의를 참조할 것.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탁신 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관료들과 왕실 군대는 함께 탁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왕 모독죄, 국정 운영의 실패,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탁신 정부를 비판하였고 탁신의 퇴진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국민의 저항으로부터 ‘국민민주주의연대(พันธมิตรประชาชนเพื่อ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가 결성되었고, 노란 셔츠 운동 혹은 반탁신 운동으로 확산됐다(서경교 2010; 김홍구 2013). 이후 탁신은 사태를 수습하려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여 승리했으나 태국 헌법재판소는 총선 무효를 선언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총선이었고, 정치적 비판의식이 높은 방콕 시민 등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불참했기 때문이었다. 총선 무효 판결에 따라 탁신이 총리에 복귀하지만, 태국의 정치는 다시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2006년 9월 태국의 군대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태국의 정치는 다시 악순환을 경험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쿠데타의 원인을 이해하기도 한다. 탁신이 집권하면서 전통적으로 왕실을 지지했던 시민들이 탁신을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국왕과 군부에게 위협적인 사회의 변화였다. 즉 탁신이 집권하면서 추진했던 정책은 태국의 전통적인 권력 세력과 기업 세력들에게 위협의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태국 군대의 쿠데타는 탁신의 부정부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관료와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여 다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발생했다는 것이다(Baker & Phongpaichit 2005, 31).

물론 태국의 2006년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국왕이 쿠데타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국왕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2006년 쿠데타를 ‘왕정주의적 쿠데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시민 단체의 지원과 국왕의 승인으로 쿠데타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Winichakul 2008, 30). 아무튼 2006년 군부 쿠데타는 1992년 태국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경험한 이후 공고화로 향한 걸음을 뒤로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이동윤 2007; 서경교 2013).

Ⅲ. 이론적 논의: 민주주의 지지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제도적 접근법과 정치문화적 접근법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분석한다. 제도적 접근법에 의하면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제도의 설계와 정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민주주의를 정치문화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법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에 대하여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를 강조한다. 특히 정치문화적 접근법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되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규범이 제도화되는 것 이외에 정치 행위자들의 태도가 내면화되고 습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없이 단순히 제도나 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불가능하며,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정치의 규범, 가치 등 일반 시민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체제가 민주적인 제도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그 체제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공고화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홍재우 2006; Linz & Stepan 1996; Diamond 1999; Shin & Lee 2006).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연구는 이스턴(Easton 1975)의 연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정당성은 한 국가의 정체 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다. 만약 정치 체제가 정당성을 잃게 된 경우 시민들은 체제를 비판하고 그 결과 체제는 불안정해진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정당성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지지로 이해할 수 있다(Diamond 1999).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인 유권자 스스로가 자신의 태도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대상인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영환 외 2011). 이스턴은 지지의 대상을 공직자(authorities), 체제(regime),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 등으로 구분했다. 공직자는 정치 지도자 혹은 현직자를 의미하고, 체제는 정치 체제의 가치를 대변하는 기본적인 원리와 체제의 제도 및 제도의 수행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공동체는 제도와 공직자를 뛰어넘어 사회와 국가

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다(배정현 2014; Easton 1975).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대상을 기준으로 포괄적인 지지(diffuse support)와 구체적인 지지(specific support)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지지는 공직자에 적용되는 반면 포괄적인 지지는 정부 및 사회와 국가를 포함한 지지로 이해할 수 있다(Easton 1975). 대상을 더 구체화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클링거만(Klingemann 1999)은 지지의 대상을 정치공동체, 정부형태, 체제의 수행능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달튼(Dalton 1999)도 공동체, 체제, 권위 등 세 가지 유형을 언급했다. 반면 노리스(Norris 1999)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차원을 정치공동체, 체제의 원칙, 체제의 수행능력, 체제의 제도 및 정치행위자 등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이때 지지의 대상들은 포괄적 지지부터 구체적 지지의 차원까지로 단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공동체에 대한 지지는 정치제도 및 체제에 대한 평가를 넘어 국가에 대한 지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지지는 반드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공동체에 대한 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서 제외한다(홍재우 2006).

민주주의의 지지에 대한 연구는 규범과 행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 우선 규범적인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의 태도, 신념 및 가치는 민주 정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다수의 시민들이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정부 형태가 민주주의 체제라고 믿는 경우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가능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데 참여나 경쟁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주주의의 이념이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내면화된 경우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이 군사독재나 시민독재와 같은 비민주적인 대안을 거부할 때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선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가 적은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이다(Shin & Lee 2006).

그러나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 이외에서 행위자들의 행동도 중요하다. 행위적인 측면에서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폭력적 행위, 불법적 행위나 비헌법적인 행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행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회에서 어느 집단이든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에 도전하거나 헌정주의의 규칙, 절차 및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Diamond 1999).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정의하거나 측정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 민주주의에 대한 적합성 등을 언급한다(Albritton & Bureekul 2002; 2008a; 2008b; Shin 2007; Fails & Pierce 2010).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부 학자들은 시민들이 경제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Chu et al. 2008). 개인의 경제적인 환경과 조건은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민주주의는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시민들이 경제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이다(조정인 2015). 국가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 경제적 성과는 민주주의 지지와 크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신생 민주주의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둘째, 일부 학자들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적 성과보다 정치적 성과라고 주장한다(조원빈 2014). 시민들은 정치현실을 반영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다. 일반 시민들은 특정한 형태의 제도가 보다 나은 거버넌스 및 발전된 민주주의 형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적합한 제도의 설계는 민주주의 체제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체제의 민주적인 제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책임성 및 법치 등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경우 그 체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IV. 연구 설계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아시안 바로미터 여론조사(Asian Barometer Survey)’를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아시안 바로미터 여론조사는 아시아에서 실시되는 다른 자료들보다 일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 및 평가를 자세히 조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 바로미터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역동적·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영준 2013; Chu et al. 2010). 아시안 바로미터 여론조사는 아시아 국가들 상대로 이제까지 네 차례(2001-2003년, 2005-2008년, 2010-2012년, 2014-2016년)에 걸쳐 실시됐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태국의 1차 자료는 탁신 정부가 출범한 2001년 10-11월에 실시됐고, 2차 자료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기 직전이며 탁신 정부의 말기인 2006년 4-9월에 조사됐다.³⁾ 그렇기 때문에 1차 조사 자료와 2차 조사 자료는 탁신 정부에 대한 민주주의를 분석하고 평가하기에 적합하다.⁴⁾

2.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민주주의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민주주의의 적합성 등 두 문항을 사용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는 다음 문항으로 측정했다. “정치 체제에 관한 다음 견해 중 OO님의 생각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세안 바로미터(www.asianbarometer.org)를 참조할 것.

4) 1차 조사 자료의 경우 2001년은 탁신이 집권한 첫 번째 연도라 탁신의 공약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태국 시민들이 탁신의 정치적 성과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탁신의 임기는 2001년 2월에 시작되었고, 1차 조사는 2001년 10-11월에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의 유권자들이 탁신의 초기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본 논문이 분석한 자료에는 문제가 없다.

은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응답자가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항상 더 낫다”를 선택한 경우에는 1로 코딩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더 나을 때도 있다” 혹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없다”를 선택한 경우에는 0으로 코딩했다. 민주주의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OO님은 민주주의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얼마나 적합 혹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의 점수(1부터 10)로 말씀해 주십시오. 점수는 1점으로 갈수록 ‘부적합한’ 상태를, 10점으로 갈수록 ‘적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의 문항을 사용했다. 여기서 1-2점은 1, 3-4점은 2, 5-6은 3, 7-8은 4, 9-10은 5로 재코딩했다. 이후 두 문항을 합산하여 단일지표 민주주의 지지를 측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지지의 최솟값은 1이고 최댓값은 6이다.

(2) 독립변수

체제의 경제적 성과는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로 측정했다. 자료는 국가 경제 상황과 개인경제 사정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현재 선생님 가정의 경제사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두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문항에 대하여 각각 “매우 나쁜 편이다”는 1, “나쁜 편이다”는 2,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3, “좋은 편이다”는 4, “매우 좋은 편이다”는 5로 코딩했다.

체제의 정치적 성과는 정부에 대한 만족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등의 두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현 정부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 하십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문항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한다”는 1, “불만족하는 편이다”는 2, “만족하는 편이다”는 3, “매우 만족한다”는 4로 코딩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완전 독재를 1점, 완전 민주주의를 10점으로 할 때 현재 우리나라가 몇 점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10점 척도로 이뤄졌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지역 등 인구 사회학적 변수이다.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2로 코딩했다.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은 5점 척도로 이뤄졌다. 연령은 “20대”는 1부터 “60대 이상”은 5까지로 코딩했다. 교육수준도 “초등학교 졸업”은 1부터 “대학교 재학 이상”은 5까지로 코딩했다. 소득수준은 “최하위”는 1, “하위”는 2, “중간”은 3, “상위”는 4, “최상위”는 5로 측정했다. 거주지와 관련하여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1, 중소 도시 이하의 규모에 거주하는 경우는 0으로 코딩했다.

3.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을 설정했다.

가설 1: 태국 시민들 가운데 탁신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민주주의를 지지할 것이다.

가설 2: 태국 시민들 가운데 탁신 정부의 정치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민주주의를 지지할 것이다.

분석모형: $Y_i = \alpha + \beta_1 X_{1i} + \beta_2 X_{2i} + \beta_3 X_{3i} + \beta_4 X_{4i} + \beta_5 X_{5i} + \epsilon_i$

Y_i : 민주주의 지지, X_1 : 국가경제 상황, X_2 : 가정경제 사정, X_3 : 정부에 대한 만족도, X_4 : 민주주의 수준 평가, X_5 : 인구 사회적 변수들, ϵ_i : 오차

V. 분석 결과

1. 태국의 민주주의

우선 2000년 이후 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약 200개 국가의 인권 상황과 민주화를 감시하는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프

리덤하우스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기준으로 매년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한다. 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프리덤하우스의 평가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태국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자유’국가로 분류될 만큼 민주주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태국은 2006년 쿠데타가 발생한 전후에는 ‘부분적 자유’ 혹은 ‘비자유’ 국가로 분류되었다. 군부 쿠데타는 의회를 해산시켰고 선거를 통해 구성된 탁신 정부를 몰락시키면서 군정을 실시했다. 이어 군부 쿠데타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 또한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았던 1997년의 인민헌법을 폐지시켰다.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였고 이로 인하여 태국의 민주주의는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6년 정치적 권리는 7점이었는데, 이는 태국의 선거과정, 정부의 기능,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도 변화가 있었다. <표 1>의 하단에 나타나 있듯이 태국은 2004년까지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되지 않았다. 태국이 민주주의가 최소주의적 개념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쟁 과정을 통해 국민의 표를 획득한 지도자에게 정치적 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Schumpeter 1943, 269)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즉 태국의 경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프리덤하우스 지표

| 연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시민적 자유(A) | 3 | 3 | 3 | 3 | 3 | 3 | 4 | 4 |
| 정치적 권리(B) | 2 | 2 | 2 | 2 | 2 | 3 | 7 | 6 |
| 평균 (A+B/2) | 2.5 | 2.5 | 2.5 | 2.5 | 2.5 | 3 | 5.5 | 5 |
| 평가 | F | F | F | F | F | PF | NF | PF |
| 선거 민주주의 | Y | Y | Y | Y | Y | N | N | N |

• F: 자유, PF: 부분적 자유, NF: 비자유, Y: yes, N: no를 의미함

2. 민주주의 지지

다음으로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민주주의 지지에 대하여 분석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은 민주주의 지지를 민주주의 선호도와 민주주의 적합성으로 측정했다.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2001년과 2006년 태국 시민 가운데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항상 더 낫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4.3%와 81.9%였다. 아시안 바로미터 여론조사에 포함된 다른 국가의 시민들보다 태국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하여 높은 선호를 표현했다. 특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로 알려진 한국, 일본, 대만보다 2001년에는 최소 5.8% 포인트(일본과 비교)에서 최대 37.0% 포인트(대만과 비교) 높았고, 2006년에는 최소 11.5% 포인트(일본과 비교)에서 최대 34.0% 포인트(한국과 비교) 높았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더 나을 때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낮았다. 그러나 2006년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는 2001년보다 2.4% 포인트 감소했다. <표 2>의 비교에 나타나 있듯이 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낮았고 심지어 2006년에는 선거 민주주의로 평가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많은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정치 체제로서 선호했던 것이다.

<표 2> 2010년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선호도 비교

| | 2001년 | | | 2006년 | | | B-A |
|-----|-------------|-------|---------|-------------|-------|---------|-------|
| | 항상 민주주의 (A) | FH 점수 | 선거 민주주의 | 항상 민주주의 (B) | FH 점수 | 선거 민주주의 | |
| 태국 | 84.3% | 2.5 | Y | 81.9% | 5.5 | N | -2.4% |
| 한국 | 49.4% | 2.0 | Y | 47.9% | 1.5 | Y | -1.5% |
| 일본 | 78.5% | 1.5 | Y | 70.4% | 1.5 | Y | -8.1% |
| 대만 | 47.3% | 1.5 | Y | 50.9% | 1.0 | Y | +3.6% |
| 몽골 | 54.9% | 2.5 | Y | 40.3% | 2.0 | Y | -4.6% |
| 필리핀 | 63.6% | 2.5 | Y | 55.3% | 3.0 | Y | -8.3% |

▪ FH는 freedomhouse를 의미함

그렇다면 2001년과 2006년 태국 시민들 가운데 누가 민주주의를 선호했는가? <표 3>은 민주주의 선호도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 분포를 보여준다.

<표 3>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민주주의 선호도

| | 2001년 | | | | 2006년 | | | |
|--------|---------|-----------|-------|----------|---------|-----------|-------|--------|
| | 항상 민주주의 | 상황에 따라 독재 | 상관 없음 | 카이 제곱 | 항상 민주주의 | 상황에 따라 독재 | 상관 없음 | 카이 제곱 |
| 성별 | | | | | | | | |
| 남 | 84.7% | 11.5% | 3.8% | 5.47 | 82.7% | 14.1% | 3.2% | 0.68 |
| 여 | 83.8% | 9.9% | 6.3% | | 81.0% | 15.6% | 3.3% | |
| 연령 | | | | | | | | |
| 20대 | 78.2% | 16.1% | 5.7% | 20.74** | 80.1% | 14.7% | 5.1% | 12.45 |
| 30대 | 82.3% | 11.9% | 5.8% | | 83.0% | 16.1% | 1.0% | |
| 40대 | 85.3% | 11.0% | 3.7% | | 81.9% | 15.1% | 3.0% | |
| 50대 | 86.3% | 9.0% | 4.7% | | 81.1% | 13.7% | 5.2% | |
| 60대 이상 | 88.8% | 5.3% | 6.0% | | 84.0% | 13.3% | 2.7% | |
| 교육수준 | | | | | | | | |
| 초등학교 | 85.2% | 9.2% | 5.6% | 12.51* | 84.6% | 12.7% | 2.8% | 18.87* |
| 중학교 | 85.9% | 12.3% | 1.9% | | 72.0% | 22.0% | 6.0% | |
| 고등학교 | 81.0% | 13.9% | 5.1% | | 83.8% | 13.5% | 2.7% | |
| 대재 이상 | 80.3% | 16.2% | 3.5% | | 80.6% | 16.7% | 2.7% | |
| 소득수준 | | | | | | | | |
| 최하 | 87.4% | 6.7% | 5.9% | 29.99*** | 88.2% | 10.2% | 1.6% | 15.20 |
| 하 | 82.8% | 10.3% | 7.0% | | 81.7% | 14.1% | 4.2% | |
| 중 | 87.5% | 9.8% | 2.8% | | 77.2% | 18.8% | 4.0% | |
| 중상 | 86.0% | 11.9% | 2.2% | | 81.8% | 14.2% | 4.1% | |
| 최상 | 76.6% | 19.5% | 3.9% | | 88.1% | 8.5% | 3.4% | |
| 지역 | | | | | | | | |
| 도시 | 85.4% | 12.2% | 2.4% | 2.98 | 80.5% | 13.9% | 5.6% | 5.20 |
| 시골 | 84.2% | 10.4% | 5.4% | | 82.2% | 15.1% | 2.8% | |

* *p < 0.05, **p < 0.01, ***p < 0.001

분석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테스트를 실시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보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의 이념을 더 선호했

다. 그러나 카이제곱 테스트 결과 성별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선호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연령별 차이는 2001년에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하여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다. 교육수준은 2001년과 2006년 모두 민주주의 선호도에 대하여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태국의 응답자 가운데 교육수준이 초등학교와 같이 낮은 경우가 대학교 졸업과 같이 높은 경우보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높은 선호를 표현했다. 소득수준별 차이는 2001년에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소득수준이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가정의 수입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인구가 적은 농촌, 산촌이나 어촌에 거주하는 태국 시민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보다 민주주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카이제곱 테스트 결과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민주주의 적합성은 민주주의 선호도와 함께 민주주의 지지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태국 시민 가운데 민주주의가 현재 태국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많았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 적합성을 측정된 문항의 분석 결과를 평균값으로 비교하는 경우 2001년과 2006년 태국은 각각 8.7과 8.3으로, 아시아 바로미터 여론조사에 포함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았다. 민주주의 선호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적합성의 경우에도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 받았던 한국, 일본, 대만보다도 높았다. 평균값으로 비교하는 경우 대만보다 2001년에는 1.9 높았고, 2006년에는 1.4 높았다.

응답자는 민주주의 적합성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문항에 대하여 6점부터 10점인 경우, 응답자는 태국의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에 대하여 6점부터 10점까지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는 경우 태국은 2001년과 2006년에 각각 93.5%와 91.6%로, 한국(86.0%와 84.0%), 일본(88.8%와 83.8%), 대만(70.6%와 73.9%)보다 높았다. 2001년과 2006년 태국 시민의 다수는 민주주의가 태국의 정치를 운영하는 체제로서 적합하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태국의 시민들은 탁신 집권 후기에도 태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지지를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즉 탁신 집권 후기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태국 시민들은 왜 민주주의에 대하여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것인가? 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태국과 같이 체제의 성과가 좋지 않고 지도자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제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탁신 이전 태국의 시민들에게 희망과 복지 정책을 제공한 정부는 거의 없었다. 태국의 많은 유권자들은 탁신 이전 정부들이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탁신의 비민주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탁신 정부에 대한 지지를 쉽게 철회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태국 시민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빈곤층의 경우 탁신 정부의 정책은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탁신이 집권한 기간 동안 태국이 IMF 외환위기에서 탈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둘째, 탁신 집권 시기 태국 사회에서 아직 ‘비판적인 시민(critical citizen)’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비판적인 시민은 체제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반응한다. 비판적인 시민들은 체제의 성과가 좋은 경우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체제 및 공직자와 정치공동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비판적인 시민들의 불만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표 4> 민주주의 적합성

| | 2001년 | | 2006년 | | B-A | D-C |
|-----|---------|--------|---------|--------|------|-------|
| | 평균값 (A) | 비율 (C) | 평균값 (B) | 비율 (D) | | |
| 태국 | 8.7 | 93.5% | 8.3 | 91.6% | -0.4 | -1.9 |
| 한국 | 6.9 | 86.0% | 6.9 | 84.0% | 0 | -2.0 |
| 일본 | 7.0 | 88.8% | 7.5 | 83.8% | +0.5 | -5.0 |
| 대만 | 6.8 | 70.6% | 6.9 | 73.9% | +0.1 | +3.3 |
| 몽골 | 8.0 | 88.1% | 8.4 | 89.2% | +0.4 | +1.1 |
| 필리핀 | 7.4 | 80.5% | 6.5 | 59.2% | -0.9 | -21.3 |

3. 경제적 성과 평가

다음으로 분석모형에 독립변수로 포함된 체제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성과는 두 문항, 즉 국가의 경제상황과 가정의 경제사정에 대한 평가로 측정했다.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2001년과 2006년 태국 시민들 가운데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각각 39.3%와 30.7%였다. 국가경제에 대하여 중립적인(‘그저 그렇다’) 시각을 지닌 비율이나 부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두 시기를 비교하는 경우 탁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년 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좋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더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포함된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같은 문항을 비교하는 경우 탁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태국 시민들의 평가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에 나타난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두 시기 국가경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조사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았다.

<표 5>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

| | 2001년 | | | 2006년 | | |
|-----|-----------|--------|-------|-----------|--------|-------|
| | 매우 좋음 (A) | 좋음 (B) | A+B | 매우 좋음 (A) | 좋음 (B) | A+B |
| 태국 | 8.9% | 30.4% | 39.3% | 1.5% | 29.2% | 30.7% |
| 한국 | 3.8% | 0.1% | 3.9% | 0.2% | 1.7% | 1.9% |
| 일본 | 0.1% | 0.9% | 1.0% | 0.8% | 14.9% | 15.7% |
| 대만 | 0.2% | 8.4% | 8.6% | 1.1% | 21.5% | 22.6% |
| 몽골 | 0.5% | 15.4% | 15.9% | 1.5% | 16.6% | 18.1% |
| 필리핀 | 2.7% | 28.3% | 31.0% | 3.1% | 18.5% | 21.6% |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응답자의 비율이 2001년에는 25.0%였고, 2006년에는 18.2%였다. 탁신 정부 초

기와 말기를 비교하는 경우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도 감소했다. <표 6>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5년 사이에 약 7% 포인트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경제상황이 비교적 좋았던 한국이나 일본보다 가정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6> 가정경제에 대한 평가

| | 2001년 | | | 2006년 | | |
|-----|-----------|--------|-------|----------|--------|-------|
| | 매우 좋음 (A) | 좋음 (B) | A+B | 매우 좋음(A) | 좋음 (B) | A+B |
| 태국 | 4.0% | 21.0% | 25.0% | 1.0% | 17.2% | 18.2% |
| 한국 | 0.2% | 8.1% | 8.3% | 0.3% | 5.3% | 5.6% |
| 일본 | 0.9% | 9.3% | 10.2% | 0.7% | 10.3% | 11.0% |
| 대만 | 0.5% | 33.1% | 33.6% | 1.1% | 38.9% | 40.0% |
| 몽골 | 1.4% | 17.4% | 18.8% | 1.1% | 17.0% | 18.1% |
| 필리핀 | 6.9% | 47.1% | 54.0% | 7.3% | 34.0% | 41.3% |

4. 정치적 성과 평가

2001년과 2006년 실시한 자료를 분석하면 탁신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표 7>에 나타나 있듯이 2001년과 2006년 현 정부(탁신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9.5%와 81.8%로 조사에 포함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비교하는 경우 2001년에는 54.6% 포인트, 2006년에는 66.7% 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태국 시민들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탁신 정부 초기인 2001년과 후기인 2006년을 비교하면 7.7% 포인트 감소했다.

<표 7>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 | 2001년 | | | 2006년 | | |
|-----|-----------|------------|-------|-----------|------------|-------|
| | 매우 만족 (A) | 대체로 만족 (B) | A+B | 매우 만족 (A) | 대체로 만족 (B) | A+B |
| 태국 | 27.4% | 62.1% | 89.5% | 34.6% | 47.2% | 81.8% |
| 한국 | 1.3% | 33.6% | 34.9% | 0.7% | 14.4% | 15.1% |
| 일본 | 3.3% | 33.8% | 37.2% | 2.3% | 30.5% | 32.8% |
| 대만 | 3.1% | 34.5% | 37.6% | 2.6% | 20.1% | 22.7% |
| 몽골 | 14.1% | 44.7% | 58.8% | 7.0% | 36.8% | 43.8% |
| 필리핀 | 8.0% | 50.5% | 58.5% | 4.9% | 25.9% | 30.8% |

<표 8>은 국가별로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평가한 평균값을 보여 주고 있다. 본 논문 변수측정을 설명한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응답자는 자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10점을 반대의 경우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1점을 줄 수 있다. 분석 결과 태국 시민들은 자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01년과 2006년의 평균값은 각각 8.2와 7.5였는데 조사에 포함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높았다. 2001년 상위 점수를 부여한 비율을 살펴보면 8점은 26.3%, 9점은 18.0%, 10점은 27.7%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70% 이상이 태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06년에는 같은 점수에 대하여 각각 24.1%, 14.9%, 12.7%로 그 비율이 많이 하락했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도 탁신 정부 말기에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감소한 비율의 폭이 크지 않았고 아시아 다른 국가들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탁신 정부의 정치적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 민주주의 평가

| | 태국 | 한국 | 일본 | 대만 | 몽골 | 필리핀 |
|-------|-----|-----|-----|-----|-----|-----|
| 2001년 | 8.2 | 6.5 | 7.0 | 7.3 | 6.6 | 6.7 |
| 2006년 | 7.5 | 6.7 | 6.9 | 7.0 | 6.7 | 5.6 |

5. 민주주의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민주주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민주주의 지지는 민주주의 선호도와 민주주의 적합성을 함께 고려하여 단일지표로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0부터 6까지의 순서형(ordinal) 척도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앞에서 본 논문은 민주주의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두 가지 체제의 성과, 즉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에 대하여 언급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성과는 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아니었다(가설 1). 논문은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와 가정 경제에 대한 평가로 경제적 성과를 측정했는데, 2001년도에 두 종류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만 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01년 태국에서 국가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일수록 가정의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일수록 민주주의를 지지했다. 그러나 2006년 탁신 정부 말기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에 대한 평가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즉 민주주의 지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체제 성과 가운데 두 종류의 정치적 성과는 민주주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가설 2). 탁신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시민들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하여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즉 <표 9>에 나타나 있듯이 분석에 포함된 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2001년과 2006년 모두 민주주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 다른 하나의 정치적 성과로 분류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도 민주주의 지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표 9>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과 2006년 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탁신 정부에서 태국의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일수록 체제의 이념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위의 분석을 통해 2001년과 2006년 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혹은 지지하지 않거나를 결정하는 요인은 체제의 경제적 성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성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탁신 정부에서 정치체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직적 책임성과 수평적 책임성 및 법치 등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주의에 대하여 높은 충성심을 나타냈을 것이다.

<표 9> 민주주의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

| | 2001년 | | 2006년 | |
|-----------|-----------|------|-----------|------|
| | 계수 | 표준오차 | 계수 | 표준오차 |
| 국가경제 | -0.25*** | 0.07 | 0.05 | 0.07 |
| 가정경제 | 0.23* | 0.09 | 0.14 | 0.10 |
| 정부 만족도 | 0.26** | 0.09 | 0.26** | 0.08 |
| 민주주의 평가 | 0.45*** | 0.04 | 0.47*** | 0.04 |
| 성별 | 0.15 | 0.11 | -0.13 | 0.12 |
| 연령 | 0.05 | 0.04 | 0.04 | 0.05 |
| 교육수준 | -0.04 | 0.06 | 0.18** | 0.07 |
| 소득수준 | -0.10 | 0.05 | -0.02 | 0.06 |
| 지역 | -0.30 | 0.19 | 0.19 | 0.18 |
| LR chi2 | 233.33*** | | 193.53*** | |
| Rseudo R2 | 0.07 | | 0.08 | |
| N | 1,402 | | 1,046 | |

• * p < 0.05, ** p < 0.01, *** p < 0.001(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VI. 결론

본 논문은 ‘아시안 바로미터 여론조사’를 사용하여 탁신 정부 시기 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태도와 인식을 살펴봤다. 또한

탁신 정부의 집권 초기와 말기인 2001년과 2006년 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했다. 탁신 정부는 통치 기간 내내 권위주의, 부정부패, 독단적인 국가 운영, 언론 통제, 포퓰리즘적인 정책 등 비판적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하여 1990년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태국의 민주화는 공고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으며 결국 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결국 태국은 2000년대 이후에도 ‘정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탁신 집권 시기 태국의 민주주의를 정치문화적인 시각에서 살펴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탁신 집권 후기 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프리덤하우스의 지표를 살펴보면 태국은 2001년 ‘자유’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과 2006년 각각 ‘부분적 자유’ 와 ‘비자유’ 국가로 분류되었다. 심지어 태국은 2005년부터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는 태국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탁신 집권 후기 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많은 시민들은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선호했고, 정부 형태로서 민주주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비록 탁신 집권 후기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와 적합성의 비율이 감소했지만,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높았다. 셋째, 탁신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에 대한 인식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다. 탁신정부 집권 후기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가정경제 사정에 대한 평가, 국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등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경우 탁신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가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 다른 국가들보다 두 종류의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민주주의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 태국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치적 성과뿐이었다.

프리덤하우스 지표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탁신 집권 시기 동안 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였다. 또한 탁신 정부의 정치적 성과는 좋지 않았고

지도자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시민들은 체제의 정치적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르다. 기존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특히 신생 민주주의의 경우 시민들은 체제의 성과에 대하여 반응하였다. 즉 체제의 정치적 성과 혹은 경제적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체제에 대한 지지와 민주주의를 지지를 철회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른 이유는 태국의 독특한 사회 현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탁신 통치 기간 내내 권위주의, 부정부패 등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탁신 정부는 태국의 역사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었다. 탁신 정부가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탁신 정부가 이전의 정부와 비교하는 경우 태국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준 것은 사실이다. 태국 유권자들의 다수는 탁신 이전의 정부들이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시민들에게 이전 정부들은 비판의 대상이었다. 특히 기독교 세력으로부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태국 시민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빈곤층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었다. 의료보험, 저금리 대출, IMF 외 환위기 탈출 등은 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경제 정책이었다. 예를 들어 탁신 이전의 정부들은 예외 없이 빈곤층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한 정책이 부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국의 정부는 그 형태와 상관없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문민정부이든 군사정부이든 정부를 정치적 혹은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시민들의 권리만 보호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시민들은 빈곤을 자신의 운명으로만 생각할 수 없었던 생활을 경험했다. 그러나 탁신 정부의 의료 정책(universal health care)은 30바트의 적은 금액으로 병원 치료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들에게 탁신 정부의 정책은 큰 희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아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탁신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같은 이유 때문에 태국 시민들은 탁신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⁵⁾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른 이유는 태국의 사회 인구조학적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탁신이 집권한 시기 동안 태국 사회에는 아직 비판적인 시민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태국 유권자들의 교육 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가 분석한 ‘아세안 바로미터 여론조사’의 1차 조사 자료(2001년)와 2차 조사 자료(2006년)를 분석하면, 태국 시민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학력수준이 낮았다. 2001년에는 응답자 가운데 71.2%, 2006년에는 응답자 가운데 56.9%가 초등학교 이하 혹은 초등학교 졸업이었다. 태국 시민 가운데 학력이 낮은 유권자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민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민이 학력 수준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비판적인 시민은 체제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반응하는데, 태국 시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5) 본 논문의 저자들이 태국 시민들과 인터뷰한 내용임.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고영준 (2013).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정치적 선호 연구: 태국사례.” 『글로벌정치연구』. 제6권. 2호, pp. 147-172.
- 김홍구 (2013). “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헌정공학.” 『동남아시아연구』. 제23권. 1호, pp. 45-87.
- 박영환·이상우·김정도 (2011). “문화적 세계관, 민주주의적 지지,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27집. 3호, pp. 159-191.
- 배정현 (2014). “정치참여와 단체참여가 민주주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0집. 2권, pp. 157-181.
- 서경교 (2010). “태국 민주주의의 위기상황: 분석과 평가.” 『한국태국학회논총』. 제17권. 1호, pp. 87-100.
- _____ (2012). “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주요 정치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제18권. 2호, pp. 1-35.
- _____ (2013).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인식: 태국사례.” 『한국태국학회논총』. 제19권. 2호, pp. 145-177.
- 이동윤 (2007). “민주주의 공고화와 퇴보 사이에서: 태국의 탁신 정부와 민주주의 논쟁.” 『국제정치논총』. 제47권. 2호, pp. 173-195.
- 조정인 (2015). “보츠와나 정부의 경제적 성과 그리고 정치적 성과에 대한 평가와 민주주의 만족도.”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1집. 2호, pp. 141-173.
- 홍재우 (2006).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정치제도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제40권. 1호, pp. 25-46.
- Albritton, Robert and Thawilwadee Bureekul (2008a). “Consolidating Democracy in Thailand: The First Four Years of Democracy under the Constitution of 1997.”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6. No. 1, pp. 41-63.
- Baker, Chris and Pasuk Phongpaichit (2005). *A History of Thail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 Wonbin (2014). “Politics, Economy and Democratic Regime Performance in Africa: Ordinary Africans’ Perspectives.”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42집, pp. 3-30.
- Chu, Yun-han, Michael Bratton, Marta Lagos, Sandeep Shastri, and Mark Tessler (2008). “Public Opin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Journal of*

- Democracy*. Vol. 19. No. 2, pp. 74-87.
- Chu, Yun-han, Larry Diamond, Andrew Nathan and Doh Shin (2010). "Introduction: Comparative Perspectives on Democratic Legitimacy in East Asia." Yun-han Chu (ed.). *How East Asians View Democra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38.
- Dalton, Russell (1999). "Political Suppor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Pippa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57-77.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_____ (2008). *The Spirit of Democracy: The Struggle to Build Free Societies Throughout the World*. New York: Times Books.
- _____ (2015). "Facing Up to the Democratic Recession." *Journal of Democracy*. Vol. 26. No. 1, pp. 141-155.
- Easton, David (1975). "A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Suppor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 No. 4, pp. 435-457.
- Fails, Matthew and Heather Pierce (2010). "Changing Mass Attitudes and Democratic Deepening."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63. No. 1, pp. 174-187.
- Huntington, Samuel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Klingemann, Hans-Dieter (1999). "Mapping Political Support in the 1990s: A Global Analysis." Pippa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31-56.
- Levitsky, Steven and Lucan Way (2015). "The Myth of Democratic Recession." *Journal of Democracy*. Vol. 26. No. 1, pp. 45-58.
- Linz, Juan and Alfred Stepan (1996). "Toward Consolidated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Vol. 7. No. 2, pp. 14-33.
- Norris, Pippa (1999). "Introduction: The Growth of Critical Citizens?" Pippa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30.
- Samudanjaja, Chai-anan (1982). *The Thai Young Turk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chumpeter, Joseph (1943). *Capitalism, Socialism & Democracy*. London: Geroge Allen & Unwin.
- Shin, Doh Chull and Jaechul Lee (2006). "The Korea Democracy Barometer Surveys: Unraveling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Democratization: 1997-2004." *Korean Observer*. Vol. 37. No. 2, pp: 237-275.
- Winichakul, Thongchai (2008). "Toppling Democrac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38. No. 1, pp. 11-37.
- ปริญญา เทวานฤมิตรกุล (2013). *ทักษิณ ชินวัตร ใน 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 ไทย,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สำนักพิมพ์มติชน.

2. 기타

- Albritton, Robert and Thawilwadee Bureekul (2002). "Support for Democracy in Thailand." *Asian Barometer's Working Paper Series*. No. 3.
- _____ (2008b).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ower in Thailand." *Asian Barometer's Working Paper Series*. No. 34.
- Nelson, Michael (2007). "People's Sector Politics' (Kanmueang Phak Prachachon) in Thailand: Problems of Democracy in Ousting Prime Minister Thaksin Shinawatra." *Southeast Asia Research Centre Working Paper Series*. No. 87.
- Shin, Doh Chull (2007). "Democratization: Perspectives from Global Citizenries."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cy Working Papers*.
- Freedom House (2016). "Annual Report 2015."
- Kurlantzick, Joshua (2010). "How Democracy Dies." *Newsweek*. Vol. 155. No. 12. March 22.

| 논문투고일 : 2017년 05월 21일 |

| 논문심사일 : 2017년 05월 26일 |

| 게재확정일 : 2017년 06월 21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4 No. 2 (2017)

**A Study on Democracy in Thailand:
Analysis of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 in Thaksin
Government(2001-2006)**

Jaechul Lee and Wikanda Limthanapilak
(Dept. of Politic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By utilizing 'Asian Barometer Survey',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ordinary people on democracy during the Thaksin government in Thailand.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determinants on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 in the early and late Thaksin government. The results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ailand's democracy retreated in the latter part of Thaksin's rule. Looking at the indicators of Freedom House, Thailand was classified as a 'free' country in 2001, but it was classified as 'partly free' and 'not-free' in 2005 and 2006, respectively. Second, despite the retreat of democracy in Thailand in the latter part of Thaksin's rule, many Thai people preferred democracy as a political system and judged democracy as a form of government. Third, the evaluation of the national economic situation the evaluation of the domestic economy, the satisfa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and the evaluation of democracy are falling in the latter period of the Thaksin government. Nevertheless, the economic and political performance of the Thaksin government can not be regarded as being negatively evaluated by the citizens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Finally, it was expected that evalua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performance will affect democratic support. In the analysis,

however, only the political performance was the determining factor of citizens' support for democracy in Thailand.

- Key words: Support for Democracy, Democratic Consolidation, Regime Performance, Thaksin Shinawatra, Thailand